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발행인 권기섭 **편집인** 김덕호

발행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7-8층
02-721-7100 www.eslc.go.kr

발간일 2025. 6. 16.

eslc.kr eslc.go.kr 경제사회노동위원회

9 772636 133001 07
ISSN 2636-1337

사회적 대화 Brief

The Social Dialogue

2025년 - 7호 | 통권 74호 |

경사노위, '국제통상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TF' 발족

- 트럼프 2기 관세정책과 공급망 재편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 논의 본격화 -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5월 2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제통상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0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제통상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은 국제 통상질서를 변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에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층 신규 채용의 위축 등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제통상관계 변화와 노동시장 대응 TF' 참여자 >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우람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
경영계(경총), 고용노동부 관계자

이에 경사노위는 국제통상관계 변화가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TF는 향후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제조업 구조전환과 노동시장 대응, ▲ 청년 일자리 대응,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책과제와 사회적 대화 의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섭 위원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내 제조업과 청년 신규 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생산성 향상을 중심에 두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권 위원장은 “이번 TF 운영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정책 의제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sic

담당 **전문위원실 강금봉 전문위원**

권기섭 위원장 “청년 고용위기 상황… 특단의 대책 필요”

- 경사노위, 제3차 세대공감 자문회의 개최 -

▲ 5월 22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3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가 열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2일, 제3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청년 고용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이성경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송강직 동아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 때 논의하기로 한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우선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이 ‘청년 고용 현황과 취업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제*한 이후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내용) 청년층 일자리 질적 악화(20대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중은 43.1%로 '03년 이후 최대치), 청년세대 내 일자리 격차 심화('24년, 쉬었음 인구 421천명, 청년 비구직니트 비중 81.9%) 등을 청년 일자리 주된 문제로 진단 후 현재 주요 12개 청년정책 개괄 평가 후 향후과제 제시

권기섭 위원장은 “청년 고용은 위기상황이며, 저성장·AI 확산 등으로 청년이 마주하는 일자리의 질적 상황도 달라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가 양질의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모든 고용노동 의제를 고민할 때 청년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ic

담당 **기획과 류형민 사무관**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AI 확산·인구 구조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노동 규범·제도의 재구성 필요 -

▲ 권기섭(왼쪽 다섯 번째) 경사노위 위원장이 5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 1주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방준식), 한국사회법학회(회장 김희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송강직·김용진) 등 노동법 관련 4대 학회와 함께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규범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노동법·사회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인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에 대해 김희성 교수(강원대)와 권오성 교수(연세대)가 발제를 맡았다.

> "(김희성 교수)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김희성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헌법(제33조 1항)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 정도에 불과해 단체협약 확장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따라 다수 근로자가 노동3권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보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첫 번째 주제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에 대해 권오성 교수(연세대)가 발제를 하고 있다.

권 교수는 "노조의 주된 활동 무대를 기업 밖으로 옮기는 '산업별(초기업) 교섭체계로의 전환'과 사업장 수준에서 '법정 근로자대표 도입 및 취업규칙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권오성 교수) 현행 법령이
>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보호 입법 필요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모든 노동관계가 법의 해석에 매달리게 된다면, 규범력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노사가 책임성을 갖고 상호 자율적인 초기업 단위 단체협약과 사업장 협정을 매개로하여 법률과 함께 복합적으로 규율하는 체계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로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포용적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한 남궁준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은 "표준고용관계를 가진 전형적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점증하고 있어 '노무제공자' 등 새로운 개념을 포섭하는 포괄적 보호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적용, 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인적 적용 범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 (남궁준 연구위원) 새로운 전형의
> 취업자가 노동시장에서 점증하고 있어,
> 새로운 개념을 포섭하는 포괄적 보호입법 필요

두 번째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 두 번째 주제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포용적 보호 방안'에 대해 남궁준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보호 법'이라는 두 축을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해소하자는 제안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상대방과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권기섭 위원장은 "디지털시대의 도래와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노사 모두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의 규범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규범의 현대화와 기업별 노사관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권기섭 위원장) 사회적 대화를 통해
> 노동규범의 현대화와 기업별 노사관계의
> 한계 극복에 최선 다할 것

경사노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제안을 향후 사회적 대화의 의제 설정과 논의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sic

담당 전문위원실 손영우 전문위원